

송화가루가 날리고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피어나면 어김없이 '부처님 오신날'이 가까워졌음을 감지한다. 해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할 것 같다. "왜 그래야 하는데?"라고 반문한다면 그저 '쉬는 날'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은 불교도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의 '부처님 오신날'은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김새를 못 알아챈다면 동사상이 필요한 때라고 말해 주고 싶다. 중생을 섬수하는 일은 보살의 최우선 과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고성(孤高性)에서 그러한 과제를 새삼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탄생계로 잘 알려진 이 고고성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다. 그런데도 불교도조차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불교를 변호하는 이들은 저만 잘 낚고 빠기는 특으로 곡해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우리 모두'라는 보편적 인간성,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말로 이해했으면 좋으련만... 인간의 존엄을 말할 때 우리는 대개 르네상스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 보다



불자 세상보기

최 성 렬
조선대 철학과 교수

천상천하 유아독존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생계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는 '참 나'이기 때문이다. 그 점은 자기본위의 시대를 추구하면서도 자기 상실이라는 아픔을 경험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이 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일이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라크 전쟁, 그 전쟁이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군 및 영국군의 이라크 포로해탈로 아랍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보도가 심상치 않아서 하는 말

이다. 그런데다가 뉴캐슬 인터넛넷의 보도는 가해 당사국으로까지 파문을 증폭시켜 놓았다. 사진속의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힌 이라크 포로의 생생한 증언을 바그다드 현지에서 취재해서 대서특필한 때문이다.

무슬림에게 나체는 지욕이라고 한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에 그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 포로들만이 아닌 모든 아랍인들의 수치를 여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무슬림에 대한 서구인의 증오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연합군의 철수

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부시의 말처럼 정말 "부끄럽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쯤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를 재확인 해보자.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라고 해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 인권임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만큼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가식이나 위선은 아닐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3D업종 종사자에 대한 차별이 엄존하고 있다. 폭력과 감금, 산업재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무관심, 악덕 사업주들의 행패 또한 여전하다. 심각한 인권유린에도 우리들은 늘 침묵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서도 이라크 포로들의 확대를 말할 수 있을까?

잊혀져서는 안 될 사람들, 그들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라는 인식으로까지 확산되게 해야 한다. 지난해 광화문을 밝힌 촛불처럼 말이다. 그래야 섬수라 할 수 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한국불교의 위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 아니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불교계의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야 올바른 모습을 찾아가게 되었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하나로 통합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로 새롭게 출범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는 한국불교가 진정한 사부대중의 공동체로 서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사부대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한국불교엔 진정한 사부대중이 없다. 그나마 스님들은 승단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재가자들은 변변한 조직이나 없이 개개인으로서 이 스님 저 스님, 이 절 저 절을 찾아 방황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불교의 현실이 이러하기에 화합된 대중이라는 의미로서의 사부대중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재가 신도들이 진정한 대중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단순히 재가자의 문제가 아니다. 재가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출가자만 제

통합을 발전의 에너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가자가 재가자의 역할까지 함으로써 출가자의 본분을 충실하지 못하고 결국 여러 오욕까지 감수하게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현실적인 원인은 바로 신도들의 조직체계가 바로 서지 못하였고, 통일된 전국적인 신도 조직이 없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에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라는 두 전국 조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한국 재가불교조직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제야 제 제도를 찾아간다는 것에 환호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시의에 맞는 활발한 신도운동을 통해 조직과 위상을 강화해 진정한 한국 재가불교의 중심으로 서기를 기대한다.

우선은 이미 종현 종벌상에 규정되어 있는 재가신도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가 승단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조건이며, 그 점에서는 출가승단도 재가자를 단순한 교회의 객체로만 보던 기존의 인식을 벗어나 재가자의 역할과 위상을 확실히 부여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만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해 둔다.

■ 성대홍(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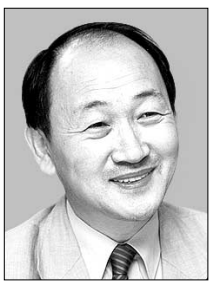
누구나 잘 욕망을 채우고자 바나나, 폭력을 남들에게 마구 가지고 그 중에서 스스로 편안하기를 구할 때는, 내생에서 즐거움을 결코 얻지 못하리라. <법구경>

100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납치기와 4건의 강도, 3건의 성폭행, 3건의 납치강도 등 범죄행각을 벌인 40대 박 모 씨, 최근 고등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위해 인체검소와 변장술을 배운 점,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점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부처님께서는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실패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천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한 행위로 인해 천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다. 강도사범을 사회에서 격리시킨 이번 선고는 열심히 일하는 대신 남의 피땀 어린 결실을 훔치는 것으로 이익 추구한 '파렴치'에 대한 경종이었다.

요즘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쉽게 자행된다. 실패율이 높아도 3D업종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시기이다.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도 쉽게 돈을 벌려고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 일을 보면서 나만 질질 떠나는 이기심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최근 TV에서 고화력이지만 3D업종에 종사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러한 이기심에 대한 본보기가 아닐까.

악행은 자신을 이롭게 하지만 여러사람은 이를 쉽게 여겨 행하게 된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셨다. 잊지 말자. 쉽게 돈을 벌고자 악행을 하는 일은 여러사람은 자만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 강지연(뉴미디어부 기자)



특별기고

제20회 불미전 공고를 보고

윤범도
미술평론가
경원대교수

제20회 불미전 공모요강이 나왔습니다. 이 전시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불미전은 격년제로 열리며 불교미술의 맥을 계승하고 저변확대와 신인 등용문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것도 세계에서 유일한 공모전이라 한다. 하지만 나는 이 대목에서 혼란을 느낀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슬한 미술전을 보아왔지만 조계종 불미전 같은 것은 보질 못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세계 유일의 공모전'일지 모르겠다. 국제 무대에서 공모전의 위상이 날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세계 유일 운운하는 것부터 촌스러움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미술전이라는 명칭을 달고도 일반 미술계와 담을 쌓고 개최되는 미술 전시란 측면에서도 아마 세계 유일의 것

창작분야 제외...시대정신 어디 담나?

와는 별개의 것이다. 옛것에만 매달려 마냥 과거지향적인 이른바 골동취미를 미술 혹은 창작품이라는 이름 아래 묶지는 않는다. 도대체 언제쯤 새로운 전진과 개혁에 눈을 돌릴 것인가. 찬란하다는 신라 미술도 당시로서는 '당대(當代)의 미술'이었다. 8세기의 미술은 8세기의 시대정신을 담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1세기의 미술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담보해야 한다. 그것이 예술이고 창작이다. 그런데 오늘의 불교미술은 이같은 기초 상식을 충실히 소화하고 있는가.

제20회 불미전에서는 그나마 있었던 일반 미술계와 담을 쌓고 개최되는 미술 전시란 측면에서도 아마 세계 유일의 것

로만 전시의 위상을 격하시키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다. 역량 있는 현역 작가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슬기 그지없다. 로마의 바티칸미술관에 가서 나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낀 바가 있다. 역대로 수직된 미술품의 내용은 곧 그 당시 대마다의 충실한 역사였다. 르네상스만이 찬란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미술 분야도 매우 훌륭했다. 그것은 과거복제가 아닌 당대의 창작품으로 항상 동시대인과 호흡을 함께 나누었던 살아 있는 역사의 산물이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미술에 목마른 것이다.

불교미전에 제언한다. 이전 종단 행사에서 미술계행사로서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미술전은 일반 미술가의 참여를 위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불교사상을 기초로 작업하고 있는 현역작가도 적지 않다. 이제 불교미전도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서는 오늘의 미술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찬란한 불교미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 범고창신(復古創新)의 정신은 소중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복제만으로 오늘의 현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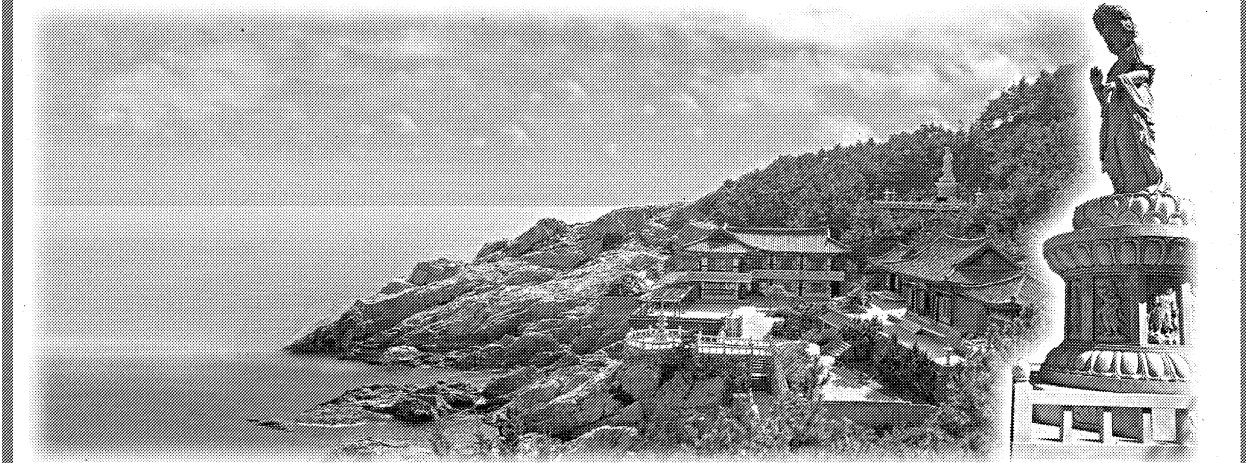
감동은 시대정신과 투철한 작가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작품을 우대하는 미전이 되어야 한다. 하여 일반 미술계는 물론 미술애호가들도 즐겁게 전시장을 찾는 불교미전이 되어야 한다.

'연대'만평 심민섭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휴대용 다구(茶具) 출시!

스님, 불자님!!! 가벼운 산행, 성지순례, 대중공양때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나 O. K. 싱그러운 차향(茶香)과 건강을 선물하세요. 단계 주문일 경우 원하시는 로고를 새겨드립니다. * 자동차 권유에 사용가능



녹차, 중국차, 티백등 입 맛따라 간편하게 사용되는 휴대용 차 도구
(株) 치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 오피스텔 511
TEL: 서울본사 02)3487-0308(대)